

새로운 문화사의 전위 '풍속사'

사회문화사 단계에서 발전한 새로운 문화사...
가장 인간적이며 흥미로운 역사학의 한 분야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마르코 블록의 말처럼 역사가는 '식인귀'와 같아서 사람냄새가 나는 곳이면 코를 들이대게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풍속사야말로 역사가의 관심을 끄는 분야라 할 만하다. 하지만 역사학에서 풍속사가 '지분'을 확보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역사학의 전면에 풍속사가 대두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사에서 사회사로 역사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했다.



풍속사는 한 인간의 이야기. 특수한 실천행위, 불특정 다수의 행동과 같은 미시사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풍속사야말로 인간의 냄새가 가장 짙게 배어 있는 역사기도 하다. 사진은 영국 창녀를 그린 작자미상의 동판화.

풍속사는 '새로운 역사'인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왜 아닌가?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도 이미 풍속사를 썼기 때문이다. 그는 1757년에 《모든 국민의 풍속과 관습에 관한 논고》를 썼다. 그는 서구사회에서 전에는 무시하던 요소는 물론 유럽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발전까지 포함하는 보편사를 철학적인 방식으로 다뤘다. 이렇게 볼 때, 풍속사는 이미 오랜 전통을 가진 역사다. 그러나 역사학이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풍속사도 새로워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발전과정을 잠시 추적하면서 그 속에서 풍속사의 자리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사에서 사회사로

20세기 초, 정치사보다는 사회사에 관심을 기울인 역사가들이 있었다. 정치사를 소수의 역사, 위에서 보는 역사, 사건 중심의 역사, 미시적 역사, 이야기식의 역사라고 한다면, 사회사는 다수의 역사, 아래에서 보는 역사, 거시적 역사, 구조의 역사, 분석적 역사라 할 수 있다. 정치사는 사회의 정예를 중심으로 본 역사지만, 사회사는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를 갖지 못하던 다수에 관한 역사를 목표로 하면서 사회단체, 사회의 구조와 모든 집단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런데 초기 사회사는 경제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사회경제사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

사회경제사는 과거의 정치사에 비해 '새로운 역사'다. 왜 새로웠는가? 무엇보다도, 일단 비판을 거친 역사적 사실도 비판의 대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실을 새롭게 비판하려 했기 때문이

다. 교과서에 등록된 사실은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실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폐기되기도 한다. 북한에 대한 사실이 요즈음 폐기 직전에 있지 않은가? 또한 고문서 가운데 다량의 공증문서, 세무관계 서류 따위를 새롭게 발굴했다. 사회경제사가 이런 문서를 가지고 사회집단별 수입과 지출, 그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이해하면서, 과거 정치사에서 보여주지 못하던 모습, 사회의 훨씬 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2500년의 역사가가 2000년의 한국사를 연구할 때, 정치사 중심으로 연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신문을 주요 자료로 갖고 있다고 할 때, 김대중·김영삼·이회창 같은 사람만이 2000년의 한국을 움직였다고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세무자료를 발굴한 역사가는 전 국민 가운데 원천징수를 당하는 성실한 납세자야말로 2000년의 한국을 움직인 주역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 사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치사가 아니라 사회사가 아닌가? 사회사가 훨씬 민주화된 관점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회경제사는 눈부신 성과를 내놓아 과거에 대해 수많은 사실을 밝혀 놓았지만, 모든 것을 경제결정론으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었다. 실제로 사회사는 많은 저항을 받았다. 특히, 새로 생기고 세력을 얻고 있던 인류학, 언어학, 사회학 같은 분야의 도전은 사회경제사의 성과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사실, 경제란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긴 해도, 경제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얼마나 많은가? 똑같은 배추를 가지고 중국인과 한국인은 다른 방식으로 먹지 않는가? 이렇듯 경제란 없는 곳도 있지만, 문화란 없는 곳이 없

음을 알게 됐을 때, 역사가들은 경제 중심의 사회사에서 문화 중심의 사회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사회경제사에서 사회문화사가 되려면,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는 일도 중요했지만, 이미 발굴한 사료를 새로 읽는 일도 중요했다. 예를 들어, 공증문서 가운데 사망자 재산목록은 사회문화사를 위한 중요한 사료가 됐다. 각 사회계층에 속한 사람이 소장했던 책을 가지고, 모든 사회계층이 문자문화를 얼마나 불평등하게 소비했는지 알 수 있는 동시에, 그 사회 독자층의 취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문화의 차이는 경제적 차이 못지 않게 중요하며, 때로는 경제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문화가 설명해준다는 사실을 사회문화사에서 알 수 있었다.

“풍속사는 가장 인간적인 역사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사회를 미리 정한 사회학적 분류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옛 사회의 구조를 이해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사회의 기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사회사가 나누는 사회직업별 분류방식으로 사회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차라리 한 사건, 한 인간의 이야기, 특수한 실천행위와 같은 특수한 입구를 통해서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관계를 보고, 사회의 기능을 이해하는 방향을 찾았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문화사’가 탄생했다. 이런 역사에서는 사회사가 지향했던 전체사를 포기하는 한편, 그것이 거부했던 이야기 기식의 역사, 미시사도 다시 존중한다.

풍속사는 이런 역사 방법론의 발전과정 속에 한 자리를 차지했다. 무엇보다도 풍속사는 사회문화사의 단계에서 발전했다. 프랑수아 르브룅의 《옛 프랑스인의 부부생활》, 장 루이 플랑드랭의 《성의 역사》, 자크 솔레의 《성애의 사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실천을 분석하고, 묘사하고, 그 동기를 밝히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됐다. 옛 프랑스 사람은 왜 늦게 결혼했을까?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혼전임신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피임을 했을까? 그들은 새 생

명이 태어나는 것과, 넷 중 한 아기가 첫돌도 맞이하기 전에 사라지는 것을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였을까?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갔을까? 총각들은 자기네 집단에서 기혼자 집단으로 나가는 친구를 어떻게 보냈으며, 왜 그랬을까? 처녀들의 경우는 또 어땠을까? 교회의 가르침은 얼마나 먹혀 들어갔을까? 약혼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공식적인 선언인가? 약혼식에서 결혼식까지 기간이 짧은 것은 순결에 대한 집착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풍속사를 ‘새로운 문화사’로 연구할 수는 없을까? 다니엘 로슈는 《메네트라라의 자서전》을 가지고 메네트라라가 속한 계층의 성생활을 복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풍속사가는 카사노바의 자서전, 《마담 구르당의 편지》 같은 문

헌을 가지고 카사노바나 마담 구르당이 속한 계층의 성풍속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회문화사건 신문화사건, 풍속사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마르크 블로크의 말대로, 역사는 식인귀와 같아서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면 코를 들이대게 마련인데, 풍속이야말로 가장 살가울 것 같고, 실제로 가장 살냄새 나는 주제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

풍속사 관련서 목록

제목	저자·편자	역자	출판사
그리스 성 풍속사(전2권)	한스 리히트	정성호	산수야
나체와 수치의 역사	한스 페터 뒤르	차경아	까치글방
로마 성 풍속사(전2권)	오토 키퍼	정성호	산수야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문화 이야기	이필영		웅진닷컴
매너의 역사	노버트 엘리야스	유희수	신서원
매춘의 역사	번 벌로	서석연	까치
사랑 그 딜레마의 역사	볼프강 라트	장혜경	이글리오
성과 사랑의 역사	필립 아리에스 외	김광현	황금가지
성애의 사회사	자크 솔레	이종민	동문선
성의 역사(전3권)	미셸 푸코	이규현	나남출판
성의 역사	장 루이 플랑드랭	박해문	동문선
성의 일본사	사사마 요시히코	김인호	지작
성풍속으로 보는 일본 문화	이경덕		가람기획
세계풍속사(전2권)	파울 프리사우어	이윤기	까치글방
섹스의 역사	토머스 윌터 리커	이현정	황금가지
이이화의 역사풍속기행	이이화		역사비평사
인도의 성풍속	요한 야콥 마이어	김형준	산수야
조선의 성풍속	정성희		가람기획
죽음의 역사	필립 아리에스	이종민	동문선
중국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재정		지영사
중국 성풍속사	R. H. 반 홀릭	장원철	까치
중국의 성문화(전2권)	유달림	강영매	범우사
중국풍속기행	치우환싱	남종진	프리미엄북스
중세의 결혼	조르주 뒤비	최애리	새물결
중세 허영의 역사	마리아 아순타 체파리 리도피 외	김정하	혜안
창부	알랭 꼬르벵	이종민	동문선
파리의 치마 밑	주명철		소나무
풍속으로 읽는 인도 이야기	요한 야콥 마이어	김형준	산수야
풍속의 역사(전4권)	에두아르트 폭스	박종만 외	까치
허영의 역사	존 우드퍼드	어윤한	세종서적